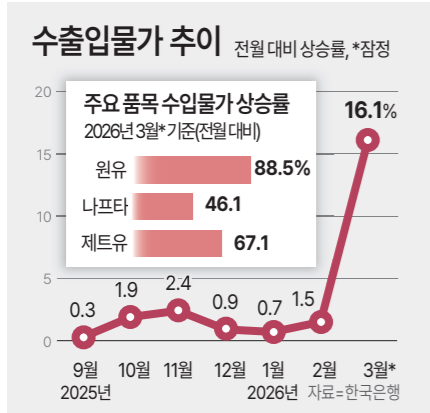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수입물가 '폭탄' 터질 판... 16% 급등

3월, 28년 2개월 만에 최고치 원유 89% 뛰고 환율 2.6% 뛰어 소고기 16·냉동수산물 3.6% 1시차 두고 밥상물가 뒤틀릴 위기 내수·성장 도미노 쇼크 주의보



“교권 보호 입법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교총은 폭행·상해 등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골자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이종원 기자

중동전쟁과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3월 수입물가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급등했다. 한국은행은 15일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수입물가지수는 169.38로 전월(145.88)대비 16.1%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도 18.4% 올랐다. 기준연도 2020년을 100으로 놓은 원화 기준 지수다. 전월대비 16.1% 상승은 외환위기 국면이던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년동월대비 18.4% 상승 역시 2022년 10월(19.8%)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수입물가 상승의 원인은 국제유가와 환율이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2월 배럴당 68.40달러에서 3월 128.52달러로 87.9%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1449.32원에서 1486.64원으로 2.6% 상승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은 원재료와 에너지 부문에 집중됐다. 수입 원재료는 전월대비 40.2% 급증했고 이중 광산품은 44.2%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중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가 53.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원유가 전월대비 88.5% 급등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부타디엔 70.6%, 제트유 67.1%, 나프타 46.1% 순으로 올랐다.

원재료 가격 급등이 에너지 및 석유화학 중간재로 전이되며 수입 물가 전반을 밀어 올리고 있는 연쇄적인 구조다. 먹거리 부담도 커졌다. 농림수산물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큰 품목은 쇠고기로 16.4% 올랐다.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냉동수산물이 3.6% 상승했다. 과일도 전월대비 5.6% 올라 식재료와 장바구니 물가 압박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간재 전반의 상승세도 소비자물가 전이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중간재는 전월대비 8.8% 상승했고 화학제품은 10.7%,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는 3.6% 올랐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1.5%, 1.9% 상승

해 에너지물 원가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국가 전체 교역조건은 오히려 개선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2.8%, 소득교역조건지수는 50.9% 상승했다.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크게 오른 데다 수출물량까지 늘어난 결과다. 반도체 가격 급등과 수출 호조가 유가 부담을 상쇄했다. 교역조건 개선에도 수입 원재료와 식재료 가격 급등은 시차를 두고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내수 물가 안정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경준 기자 gju@skyedaily.com

불붙은 '종전 랠리'... 6000p 안착

美·이란 협상 기대감... 6091마감 외국인·기관 복귀... 사자 반전 코스피가 미·이란 종전 협상 재개 기대를 타고 40여일 만에 6000선을 돌파했다. 중동전쟁 이후 처음이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3.85p(2.07%) 오른 6091.39로 장을 마

감했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협상 기대감에 전날 장중 6000선을 돌파한 이후 159.02p(2.74%) 오른 5967.75에 마감한 데 이어 이를 연속 상승세다. 반도체 랠리와 종전 협상 기대감에 코스피는 중동전쟁 직전인 2월25일부터 27일(6083p, 6307p, 6224p) 수준까지 회복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트럼프 리스크'로 촉발됐던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일부

완화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증시로 강하게 유입됐다. 외국인은 전날 9164억 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 오늘도 5523억 원을 더 사들였다. 3월 중 43조 원 이상을 순매도하는 등 3개월 연속 매도세가 지속됐으나 돌아온 외국인 이 이를 연속 코스피를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9355억 원을 순매도하며 이의 실현에

나섰다.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반도체로 삼성전자는 2.18% 상승하며 21만1000원 대를 회복했으며 SK하이닉스는 2.99% 오른 113만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전날에 이어 장중 신고가 갱신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피 상승은 미·이란 협상에 대한 기대가 배경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추가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경준 기자 gju@skyedaily.com

달라진 대한민국 富의 지도

50대 이하 신혼 자산가 30%는 회사원·공무원

하나금융연구소 리포트

최근 10년 사이 자산 10억 이상을 증식한 50대 이하 자산가들은 주로 30평형대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며 금융 수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산 포트폴리오 무게 중심을 부동산에서 금융 투자로 옮기며 자기 계발과 사회적 교류에도 역점을 뒀다. 부를 과시 수단이 아닌 '시간의 자유'로 정의하는 엘리트 부자 집단. 이른바 'K에밀리'가 대한민국 富의 지도를 재편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15일 발간했다. 올해 발간 18년째를 맞은 이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K에밀리(K-EMILLI: Korea Everywhere Millionaires)'다. K에밀리는 최근 10년 이

정기적인 기부를 실천하고 있기도 했다. 이들의 기부율은 62%로,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기존 부자 집단의 58%보다 다소 높았다. 부의 축적은 단순하지만 전략적으로 이뤄졌다. 평균 8.5억 원인 초기 종자돈을 모을 때는 예·적금(43%)을 활용해 성실한 저축에 집중하지만 자산 증식 단계에 들어서면 자기 계발을 중심으로 치열함을 드러낸다. 소득 인상(44%)과 주식 등 투자 수익(36%) 극대화에 매진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처 영역을 넓힌다. 금·예술품 등 현물 자산이나 절세를 위한 금융 상품도 활용한다. AI 기반 투자 앱이나 관련 도서를 활용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적 투자자'로서의 면모도 뚜렷했다.

내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을 확보한 50대 이하 젊은 자산가를 특정한 용어다. 보고서는 K에밀리의 부 형성 과정과 투자

K에밀리의 투자 철학은 '선 공부 후 투자'다. 10명 중 9명이 "투자 대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를 시작한다"고 답하며 막연한 분산 투자보다는 본인이 잘

전통부자와 거리 먼 K에밀리 연소득 5억 대·40% 대학원 졸업 평균 51세... 44% 국평이하 거주 先공부 後투자 냉철한 태테크

철학을 분석하는 한편, 2026년 자산 관리 전략과 상속·증여 트렌드, 부자들의 모임과 부의 상관관계 등도 짚었다. 우선 K에밀리는 흔히 연상되는 부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평균 나이 51세로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 중이지만 44%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30평형대 이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프로그래밍 직업보다 평범한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30%를 차지했다. 반전은 확 찬 내실이었다. 연평균 가구 소득 5억 원대로, 근로자 재산 소득 외 소득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10명 중 4명은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부의 잣대를 자산 규모가 아닌 책임 의식 등 가치 축적에 두는 것도 K에밀리의 특이점이었다. 부를 단순 과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시간적 자유에 역점을 두며

이는 영역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임을 내비쳤다. 또한 48%가 자산 증식 방법으로 "부동산보다 금융 투자가 더 효율적"이라는 답을 내놨다. 황선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K에밀리는 과거처럼 사업 성공이나 상속이라는 수동적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뚜렷한 주관으로 금융 투자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부자 유형"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들을 기점으로 과거 부 축적의 원동력인 '부동산 불패'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자산의 무게 중심이 금융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또 "이러한 자산 구조 전환기에는 금융사들이 단순한 상품 판매뿐 아니라 자산관리 파트너로서 새로운 시도와 역할 확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혜 기자 parkjh@skyedaily.com

지면 속의 그 부자-명사, 이제 당신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엄선한 대한민국 대표 명사들. 팬클럽 가입 시, 당신이 꿈꾸던 그분을 직접 만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 참여하고, 당신의 롤모델을 직접 대면하세요